

말씀의 샘

부활 신앙에 대한 단상

사후의 세계는 경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별 문제가 없이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보통의 경우,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윤회설(輪回說)을 믿는 불교신자의 경우는 기독교의 부활 증명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불교인들의 목적은 무정무욕(無情無慾)의 세계로 해탈(解脫)하는 것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부활은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서 본능적으로 그리워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며,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막연한 환상을 사실은 저마다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3: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부활(復活)의 어원적인 뜻은 다시 일어선다는 말로, 그 실제적인 내용은 사람의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재생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많은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마27:53)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눅24: 42- 43)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요20:19)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도다』(고전15:2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요6:40)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11:25)

다른 종교의 교주와는 달리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죽은 자를 직접 살리신 예가 3번 있었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회당장 아이로의 딸(막5:35-43), 나인 성 과부의 아들(눅7:12-15), 베다니의 나사로(요11:39, 40, 44),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무덤에 묻혔던 성도들(마27:52,53)이 일어난 일이 있었다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경우가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의 기도를 받고 살아난 도르가(행 9:36-40)와 바울이 설교할 때,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행 20:9-12)의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도 없이 하늘로 데려감을 받은 사람이지만(창5:24, 왕하2:11)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세상의 종말) 모두 영원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5:29)고 하신 말씀에서, 불신자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전15: 51- 52) 하였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성경대로 믿고 사는 자는(요20:31) 그 삶의 가치관에 따른 정서마저 불신자와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요일5:4)

부활과 영생을 믿게 되면 세상에서 생기는 욕심과 시기, 질투, 교만, 좌절, 뿐만 아니라 죽음과 핍박으로 인한 고통스러움까지도 극복할 수 있음을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린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의 힘인 것입니다. **또한 부활과 영생을 확실히 믿는 자는 생명의 역사를 이룹니다.** 기독교는 2천 년간 세상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결코 흥내 낼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활과 영생을 기초로 생명의 역사를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픽션도, 판타지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입니다. 그가 단지 허상처럼 영으로, 환상적으로, 정신적으로 부활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는 실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부활은 교훈이나 추억이나 모본이 아니고, 생생한 현실(reality)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실체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며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가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활신앙입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이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마28:20)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은 매주일이 부활절이고, 매일이 부활절입니다. 두란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그 어떤 절망도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2016. 3. 26 이 강화 목사

2016. 3. 27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누가복음 24:36~49, 로마서 14:19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산 믿음의 시작"

세 례 식

- 유아 세례자 : 김 다솔, 김 예솔, 김 예지
- 세 례 자 : 윤 용준, 박 미라, 문 정아, 강 민아, 김 동해, 진 하빈, 진 주찬, 박 민용, 김 은서, 김 윤서

성 잔 식

찬 양

죽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